

1 동정

- ▶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1일 인협을 예방한 최대광 중앙인크 대표와 인쇄와 잉크산업의 공동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 **이수성**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2010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 ▶ **이정춘** 한국출판학회 회장은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30분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 ▶ **윤형두** 범우사 대표는 지난 1월 14일 한국일보 주관으로 열린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백상특별상을 수상했다.
- ▶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지난 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2010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2 부음

- ▶ **이영수** (주)대아인쇄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1월 12일 별세했다.

3 화족

- ▶ **김중용** (주)한성실업 대표이사의 장남 진우 군이 지난 1월 8일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방화영** 시온정판사 사장의 장녀 지원 양이 지난 1월 9일 엘타워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기섭** 문창출판사 사장의 딸 경수 양이 지난 1월 9일 서강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박명숙** 룬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차녀 마옥 양이 지난 1월 30일 12시 라마다서울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박용기** 삼조인쇄(주) 대표이사의 아들 준영 군이 지난 1월 23일 마벨레스 1층 플로리아에서 화족을 밝혔다.

4 이전

- ▶ **고려문화사**(대표 권영석)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2-1로 이전했다.
- ▶ **(주)영문프린텍**(대표이사 이경중)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목정동29-13으로 이전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인협, 회장단 회의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인협 회의실에서 홍우동 회장과 민창준·김국·김남수 부회장, 오세의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9년 사업과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산, 2010년 사업계획 등을 검토했다.

홍우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문화부로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국고지원이 지난해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업계의 공동 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해 부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정희 하나로에드컴 대표 문화부 장관 표창



손정희 프린팅코리아 편집위원(하나로에드컴 대표)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인협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홍우동 인협 회장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손정희 편집위원은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프린팅코리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잡지의 표지를 독특하게 디자인하고 본문의 편집을 미려하게 하여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를 발굴, 게재토록 하여

인쇄인들이 최신의 인쇄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또 1995년부터 디자인 전문회사인 하나로애드컴을 창업, 각종 출판물과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 등을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미시켜 디자인하므로서 우리나라 인쇄·출판·디자인 문화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쇄문화”라는 홍보 책자를 디자인한 후 해외에 배포케 하여 우리나라의 인쇄문화가 세계 최고수준에 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손정희 편집위원은 이같은 공로로 2007년에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에서 출판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국제 디자인상인 IBA상을 수상한 바 있다.

‘친환경 인쇄’ 인증 위한 MOU 체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대표 안 시퍼)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인쇄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친환경 인쇄 인증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국내외의 화두인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인쇄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인쇄 인증 업체인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와 손잡고 이 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쇄사는 'FSC' 라는 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수출인쇄물이나 대기업, 공공 기관 등에서 인쇄물에 환경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협과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인협 회원사가 인증을 추진할 경우 인증비용을 10% 감액하게 된다.

한편 인협과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는 오는 3월 인협 교육관에서 친환경인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인쇄학회지, 학술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

한국인쇄학회(회장 구철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인쇄학회지’가 지난해 12월 25일 한국연구재단의 2009년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인쇄학회지는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됨에 따라 인쇄분야의 유일한 학술지로 수준 높은 학술 연구 논문집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단이 통합된 국가 연구관리 기관이다.

5 변경

▶ (주)와이에이치의 대표이사에 최근 김응호 씨가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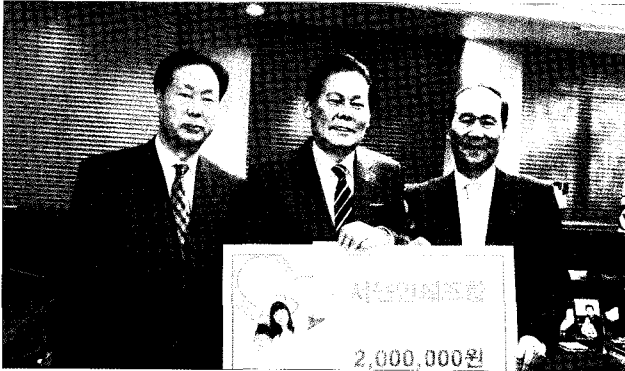
▶ 우성사(대표 유기준)는 최근 상호를 우성애드컴으로 변경했다.

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중소기업청은 2010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난해 12월 31일 공고했다. 인쇄는 28개 경쟁제품으로 확정됐다. 주요 변동내용은 군별(사무용, 책자, 홍보용)로 분류하였던 것을 ‘인쇄물’로 통합하였으며, 세부품명을 종전에 단체수의계약 지정 때 쓰던 명칭에서 조달청 G2B명칭과 일치시키고 군별 분류가 없어짐에 따라 기타인쇄물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물품분류	세부품명
1411506	컴퓨터출력용지 (전산디자인용에 한함)
1411801	티켓
1411802	영수증 및 영수증철
1411804	계산서 및 계산사철
1411805	회계전표 또는 전표책
1411806	양식용지 또는 질의서
1411810	인사서류양식 또는 인사장부
1411899	일반행정공통서식
1411808	경리양식 또는 경리장부
1411812	재고관리양식 또는 재고장부
55101599	기타인쇄물
1411513	장부용지
1411514	종이패드 및 공책
55101599	교육용 및 작업용 도서
55101510	여가용도서 (부수제작 전자책 포함)
55101515	홍보물 및 연간보고서
55101519	정기간행물
55101521	작동 및 교육매뉴얼
55101598	법전
55101529	통장
1411605	연하장 및 엽서
44112002	달력
55101504	신문
55101518	기술도해
55101520	교육용인쇄지 또는 팜플렛
55121501	수하물표리표
55121612	프린터라벨(인쇄라벨에 한함)
60121008	포스터

서울인쇄조합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해 12월 11일 중구청(청장 정동일)을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조정석 이사장은 “중구 일대에 추진되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추진계획으로 많은 인쇄업체들이 불안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구 산업의 발전에 인쇄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쇄마을 조성 검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동일 구청장은 “중구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등 솔선수범해 온 서울인쇄조합은 물론 인쇄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중구 산업에도 인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쇄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조합 조정분과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전)는 지난해 12월 11일 인쇄정보센터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서울인쇄조합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인쇄조합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특수인쇄공사 김정전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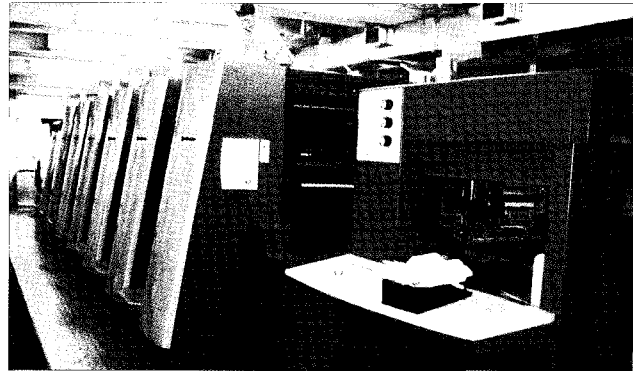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구 내에 인쇄문화마을을 조성해 줄 것, 인쇄업 종사자 가족 10만여명의 생계와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는 1만 인쇄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며, 탄원서 명부는 조합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ogress news



국일특수인쇄, T3절 6도 및 코팅 인쇄기 설치



서울시 중구 예관동에 위치한 국일특수인쇄(주)(대표이사 권오국)는 최근 하이텔베르그의 T3절 규격의 XL 75, 6도, 코팅 유닛, UV 및 IR 건조기를 장착한 인쇄기를 설치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UV 코팅 및 수성 코팅이 모두 인라인으로 가능하게 된것은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스피드마스터 XL 75는 하이텔베르그가 드루파 2008을 기점으로 T3절 인쇄기 중 최고 성능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여 처음 선보였다. 급지부에서 배지부까지 자동화 기능이 확대되어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보장하여 엄격한 인쇄 조건도 충족시켜 준다.

스피드마스터 XL 75의 잉킹 및 습수 시스템은 매우 정확한 색상을 재현하며 낮은 잉크량을 사용하는 인쇄물에서 특히 뛰어난 품질을 제공한다. 잉킹 유닛 온도 조정 장치, 콤비스타는 일관된 인쇄 조건과 잉크 밀도를 보장하며 동시에 생산 속도를 높이고 손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잉킹 유닛의 컬러 패스트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원하는 잉킹 변경에 즉각 반응하여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이고 있다.

스피드마스터 XL 75를 조정하는 프리빅 프레스 센터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확장된 기능성과 인체 공학을 갖추어 기존의 콘트롤 센터의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

혁신적이며 공정 지향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인 인텔리스트라트(Intellistart)는 작업 준비 단계를 줄이는데 뛰어나며 국일특수인쇄에 설치된 XL 75는 정교한 스폿 코팅 및 특수 코팅으로 경쟁력을 가져오는 챔버 블레이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건조장치인 드라이스타 컴비네이션으로 적외선(IR), 핫 에어 및 순환 에어 모듈을 통합, 인쇄기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건조 과정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높은 효율로 처리된다.

안태복 대표 국제구호단체 후원



안태복 디앤비애드 사장이 자녀의 결혼축의금 전액을 월드 비전에 전달, 가나 크라치웨스트지역에 우물 13개를 뚫는데 쓰였으며, 최근 우물 준공을 보기 위해 가나를 방문했다.

안태복 사장은 이번 방문을 위해 염소 50마리, 티셔츠 1천 장, 운동화 500켤레, 반바지 250장을 기증하였으며, 또 다른 마을에 우물 뚫는 것을 추가로 지원키로 약속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성도GL/성도솔루윈, 신년의 밤 개최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월 8일 반야트리에서 직원&가족과 함께 2009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2010년을 맞이하기 위한 신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해 2009년 한 해의 의미를 정리하고, 함께 2010년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성도GL/성도솔루윈에서는 2010년을 창립36주년의 반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원년으로 삼고 "Graphic Dream, that we serve!"의 미션 아래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이룩하여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다시 한 번 목표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윈, 전 직원 마케팅 교육 실시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2월 22일 '고객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전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약 2시간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일에 실시한 '마케팅 뒤집어 보기' 교육의 연장선으로 고객관점에서 본 마케팅의 현주소와 고객의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등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성도GL/성도솔루윈에서는 앞으로도 교육과 제도를 통한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진PMS, 신년맞이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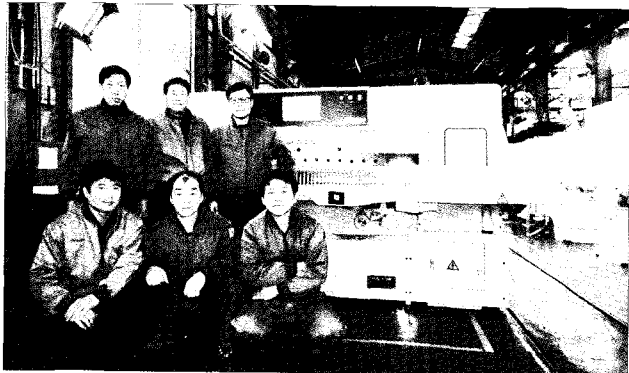


고모리 한국 총대리점인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1월 2일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 직원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산을 등반했다. 해맞이 산행은 일진PMS(주)가 매년 신년에 개최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 등 서울 인근의 산을 등반해 왔으나 올해는 연이은 한파 속에 얼어붙은 등산로 대신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해 가까운 남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등반에 참가한 직원들은 남산은 낮은 산이지만 곳곳으로 뻗은 산책로와 전망대, 팔각정, N타워 등 볼거리가 다양하고 특히 남산에서 바라본 일출과 눈 덮인 서울경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등산에 참가한 박경재 대표는 "남산은 가까이 있지만 자주 찾지 않게 되는데 신년에 일진PMS(주) 가족 모두와 함께 오르게 되어 기쁘며 올 한해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중기계, 월마트에 대형재단기 S-1900 납품



대중기계(주)(대표이사 여인성)는 지난 1월 세계 최대의 대형 할인유통업체인 월마트에 유럽업체를 따돌리고 대형 재단기를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대중기계는 이번 수출은 그동안 미국시장에서 쌓아온 높은 품질신뢰도와 폭넓은 인지도가 이루어낸 결과로 대중기계의 미주시장 대리점인 C&P사는 이번 납품을 대중기계의 재단기가 중형 시장에 이어 대형 재단기시장에서도 제품성능과 가격면에 있어 선진 유럽업체들 및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쾌거라고 전했다. 대중기계는 월마트 본사의 재단공정 책임자도 기존의 대형재단기들에서 아쉽게 느껴왔던 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대중기계의 재단기에 대해 놀라움과 대단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칼높이 자동 조정장치, 클램프 압력 자동 조정장치, 부하감지 자동 동력차단 안전장치, 초고속 백게이지 이송장치, 반영구적인 유압클러치 등의 대중기계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소형 재단기와 동등한 정밀한 재단 정도와 탁월한 기계 내구성 등에 만족한 월마트는 성공적인 1호기 가동에 힘입어 올 상반기 중에 2호기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기계는 전사원이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대형 및 초대형 재단기에 있어서도 미주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제패할 야심찬 포부와 대단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테크, 우리기업·성원애드피아에 가습기 Eco-mist 공급

신안테크(주)(대표이사 김순호)는 최근 인쇄 자동화설비 전문 업체인 일본 KIDA사에서 종전 제품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



인 airless방식의 Eco-mist를 (주)우리기업과 성원애드피아에 공급 설치했다고 밝혔다.

airless 방식의 Eco-mist는 저소음과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인쇄 공장 내부의 건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시켜 인쇄 효율을 증가시켜 주게 되며, air compressor 방식의 가습기에 비해 air compressor가 필요하지 않아서 설치비용과 가습기 가동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air compressor 설치 공간을 절약하여 공간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가습기 소음이 없어서 쾌적한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

Eco-mist는 2개의 토출구가 전면을 향해서 분사하는 방식과 6개의 토출구가 원형을 이루면서 분사하는 방식의 2가지 종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쇄 현장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가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신안테크(주)는 공장 자동화 설비 및 우수한 인쇄 재료를 공급하는 중견 업체로서, 용지반전기, 가습기, 로봇팔레타이저, 잉크중앙공급장치와 Meiji사의 블랭킷과 Ultrachem사의 습수액, 블랭킷 세척액 등의 인쇄 재료와 블랭킷 세척용 습식 세정포 및 건식세정포 등을 공급하고 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복합기 프로모션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소호 및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2010 복합기의 자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0 복합기의 자격' 이벤트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소호 및 중소기업들이 활기찬 해를 맞이하도록 응원하고자 후지제록스 프린터스가 야심차게 기획한 행사이다.

최적의 비즈니스용 복합기 자격을 갖춘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의 '2010 복합기의 자격' 이벤트는 오는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제적인 4 in 1 A4 모노 레이저 복합기 'Phaser3100 MFP'와 동급 최강 제품인 A4 컬러 레이저 복합기 'DPC1190FS' 모델, 'DPC3290FS'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JVC 디지털 캠코더(1명), LG X-note 아이스크림 넷북(2명), 만도 네이게이션(5명), 웅진 케이스 공기청정기(8명), 애플 매직 무선마우스(10명), 바이브 홀릭 스피커(20명), 북

그림(50명), 엔제리너스 기프트카드(200명)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8일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_ www.xeroxprinters.co.kr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애크로벳9 세미나 개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오는 2월 4일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최신 전자문서 솔루션 '어도비 애크로벳 9'을 활용하여, 탈(脫)



종이, 친환경 그린 IT를 실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업무 경쟁력 강화,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는 방안을 소개하는 '그린오피스를 위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도비의 '그린오피스를 위한 업무 혁신 세미나'는 ▲환경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커뮤니케이션 혁신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그린오피스를 말 빠르게 실현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례들을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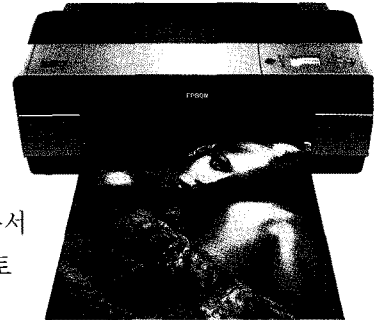
한국엡손, Epson PictureMate 310 이벤트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은 PC없이 사진 출력이 가능한 디지털 액자 겸 사진 전용 포토프린터인 'Epson PictureMate 310' 출시 기념 예약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Epson PictureMate 310'은 7인치 고해상도 컬러 LCD를 탑재, 디지털 액자로 사용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로 액정 부분은 틸트 및 슬라이드 기능을 지원해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달력과 시계 등 12개의 다양한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해 여러 개의 사진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4종류의 카드 슬롯으로 다양한 메모리 카드를 지원해 PC없이 직접 인쇄가 가능한 3단계 간단히 출력할 수 있다. PC연결 시에는 메모리 카드 드라이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200MB의 내장 메모리로 인쇄된 데이터에 대해 메모리 카드 없이 재 인쇄를 할 수 있고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도 다시 인쇄 및 슬라이드 쇼가 가능하다.

한국엡손, 고품질 초소형 A2 포토 프린터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은 스튜디오, 파인아트, 그래픽아트 등의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진가 시장을 타겟으로 고품질의 대형문서 출력이 가능한 A2 포토 프린터 'Epson Stylus



Pro 388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타일러스 프로 3880은 사진 전문가를 위한 포토 프린터로 최대 A2 사이즈까지 출력할 수 있고 엡손의 'NEW EPSON Ultrachrome K3' 잉크로 정확한 컬러 연출이 가능해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사진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백라이트 방식의 2.5인치 대형 LCD화면을 통해 노즐 보수 및 청소, 잉크 잔량 표시와 같은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초기 네트워크 설정 시에도 PC를 사용할 필요 없이 프린터의 LCD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또 4×6인치부터 17×22인치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3개의 용지 급지 경로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시중에 출시된 A2 사이즈 프린터 중에 가장 작은 크기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용이하다.

한국 HP, YBM 어학원과 프린팅 프로모션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월 14일 YBM 어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 관련 무료 프린팅 제공 및 프린터 및 복합기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뽐아라, 그대의 첫 페이지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겨울 방학을 맞아 어학 강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학습 관련 출력량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이벤트 기간에는 '한국 HP 데스크젯 잉크 어드밴티지 프린터 및 복합기'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와 푸짐한 경품과 함께 HP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 관련 추가 자세한 사항은 YBM 어학원 사이트 (<http://www.YBM 어학원edu.com/>) 및 행사 문의처(080-703-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판뉴스
Publishing news

출협,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해 12월 21일 출협 4층 강당에서 제6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6회를 맞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받은 도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사 한 후 선정한 수상작을 시상하는 자리다.

백석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상은 대형기획물 외에 일반도서를 시상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출판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상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의 수상을 발판 삼아 우리나라 출판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6개 분야, 총 13개 도서가 수상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은 일반도서에 ‘17세기 자연철학’ (그린비), 대형기획물에 ‘재미있다 우리고전 시리즈’ (창비)가 영광을 차지했다. 기획편집 분야는 ‘종묘의 궤 1, 2’ (김영사)가,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옥이네 이야기 시리즈’ (보리), ‘우리문화그림책 시리즈’ (세계절출판사)가, 저술 분야는 ‘문명과 바다’ (산치림), ‘한술 알강달강 옛이야기’ (한솔교육)가 선정돼 대한출판문화협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출판경영자협회회장상으로 번역 분야에 ‘독재자들-히틀러 대 스탈린, 권력자동의 비밀’ (교양인), ‘어린이 철학그림동화’ (큰나출판사)가, 특별상에 ‘완역 이육전집’ (휴머니스트출판그룹), ‘육체의 탄생:몸 그 안에 새겨진 그대의 자국’ (민음사), ‘리틀 스펀지 과학동화’ (한국가우스), ‘첫지식 그림책콩알’ (웅진씽크빅)이 수상했다.

한편,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에 이어 3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어린이도서상’ 과 ‘모범장서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출협, 출판인 신년교례회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1월 6일 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2010년 출판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경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삼성출판인쇄박물관 명예회장 및 출판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백석기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출판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출판문화 발전을 촉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백석기 회장은 올 한 해 출판진흥기구 설립 추진, 범 출판계 공동 상설 기구인 ‘부도 대책 위원회’ 운영, 도서 정가제의 완전 정착 추진, 출판 저작권 문제 대책 강화, 서울국제도서전 재정립, 한국 출판의 국제화 추진, 각종 시상제도 개편 및 납본의 날 제정, 정관 개정을 검토 추진, 임원 선거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잡지협회 잡지인 신년교례회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1월 8일 프라자호텔에서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양성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흥기 한국사보협회 회장 및 잡지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잡지인 신년교례회’ 를 개최했다.

전용진 회장은 “잡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언론에서 한발 더 앞서 문화의 핵심적인 매체지만 정작 정책 및 법적·산업적 측면에선 관심과 지원이 배제되어 왔다”며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발전해 온 한국 잡지계가 오늘보다는 내일,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욱 발전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 2010년 신년회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 1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출판인회의회관에서 각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한철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감사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년회의 특별 순서로 최근 책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여 매출신장이 기대되고 있는 e-북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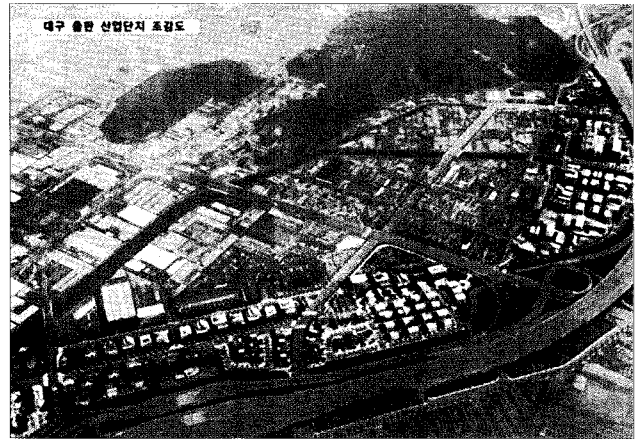
초중고생 용 전자교과서로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은 서책형 교과서 외에 CD로 된 전자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이거나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 등도 일정 심사만 거치면 고등학교 교과서로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전자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교과서 가격 및 외형이 자율화되면 교과서 내용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고 두꺼워지게 돼 가지고 다니기 쉬운 전자교과서를 개발,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쓰고 집에서는 전자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출판산업단지 조성 고시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인쇄출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대구 나들목 일대에 24만 6259m² 규모의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지정, 고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열람 및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난 1월 11일에 출판산업단지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출판단지에는 인쇄업, 출판업, 영상·정보서비스업종, 서적도매업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시킬 계획이며 대구시는 이곳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단지로 조성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기술과 비즈니스 체계의 고도화로 문화적 창의성과 결합된 융합형 콘텐츠 생산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2년에는 산업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분양예정 시기는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인쇄 및 출판산업의 지원을 위해 지원 기구를 설립, 창의적 출판 콘텐츠업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인쇄산업의 구조고도화, 출판콘텐츠 생산의 자생력 확보, 전자책 시장 진입기반 확보, 출판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단지가 본격 가동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 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출판단지 조성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주물량 부족, 과당경쟁 등에 의한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해소 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스토리텔링과 인쇄 및 출판콘텐츠 생산의 자생력을 높여 인쇄출판콘텐츠 생산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제지뉴스

Paper news



제지공업연합회, 2010년 신년인사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창무)는 지난 1월 7일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10년도 제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신년인사회는 회장인사말, 신규회원사 소개, 학계 관련학과 교수 소개, 업계 원로들의 덕담 및 건배제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제지업계는 금융위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미래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2010년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문화송년회 개최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은 지난해 12월 31일 7층 강당에서 이색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문화송년회'를 테마로 진행됐으며 무림페이퍼가 평



소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하고 있는 진주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펼쳐졌다. 또한 비발디의 '사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무림 임직원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음악들을 연주한 이날 송년회는 2009년의 성공적인 마감과 함께 2010년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무림, 2010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지난 1월 4일 서울 신사동 본사 사옥에서 시무식을 갖고 직원들에게 호랑이 저금통을 선물하며 2010년 시무식을 열었다. 무림은 2010년 경인년 범띠해를 맞아 특히 올해는 내년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직원들에게 힘과 패기를 상징하는 호랑이 모양의 저금통을 선물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업의 준비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올 한해 전 부문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경주해서 완벽하고 차질 없는 사전점검과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한 해의 덕담을 나눴다.

무림, 네오클럽21 신년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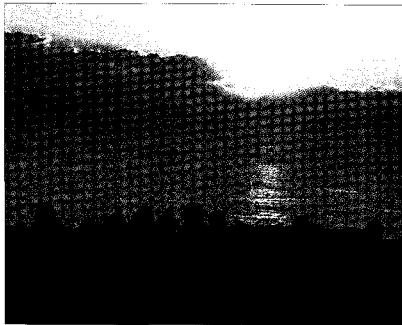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1월 11일 세종호텔 해금강룸에서 네오클럽21 신년회를 개최했다.

네오클럽21 회원사와 무림의 임원진 약 35명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2010년의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약속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무림P&P 일관화공장 건설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업계에서의 무림의 비전을 제시하고 무림과 네오클럽21의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림P&P, 2010년 해맞이 행사 개최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1월 1일 울산공장 내 해맞이 장소에서 2010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과



가족 200여명은 7시 30분 첫 해가 뜨자 첫 일출을 반기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빌었으며 아울러 올해 무림P&P 일관화공장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했다. 한편 무림P&P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가지면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새해 소망을 비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한국제지, 2010년 시무식 개최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지난 1월 4일 각 사업장 별로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 본사 10층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전원중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조직의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목표와 임무를 최우선시하는 단합을 이루어 전력을 상승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무식을 겸한 다과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을 포함하여 전사가 합심하여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달성한 노고를 치하하며 이를 자양분 삼아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0년 신년하례회 및 우수 거래처 포상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지난 1월 11일 인쇄용지 대리점을 비롯해 실수요 고객, 복사지 대리점 등 총 43개 업체 대표를 초청, 2010 신년하례회를 치렀다. 이날 행사는 새해 인사와

더불어 우수 거래처 포상으로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올해 업황을 전망하고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하이퍼CC 패키지

지난해 연말, 10년간 꾸준히 선행을 해온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기부한 8026만 5920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하이퍼CC 패키지에 담아 전달해 주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년째 지속된 기부천사의 선행에 대해 전주시는 그를 기념해 올해 표지석을 만들어 제막식을 열 계획이다. 표지석에는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담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센터 앞 도로 이름도 ‘얼굴 없는 천사로’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제지는 하이퍼CC 상자에 담겨 전달된 이 기부금은 불우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움의 손길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각박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해준 소중한 불씨라며 이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제지의 경영철학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뉴스

www.kjnews.com



중국, 인쇄·출판업 민영화 계획 박차

중국이 출판·인쇄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GAPP)는 작년 4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의 도서 출판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 민간기업의 출판·인쇄업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표했다.

출판총서는 이날 발표한 ‘신문출판업 발전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지도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 문건에서 개인과 민간

기업이 ▲출판 내용 제공 ▲국유기업과 합작 ▲국유기업의 일부 부서화 등 방식을 통해 출판·도서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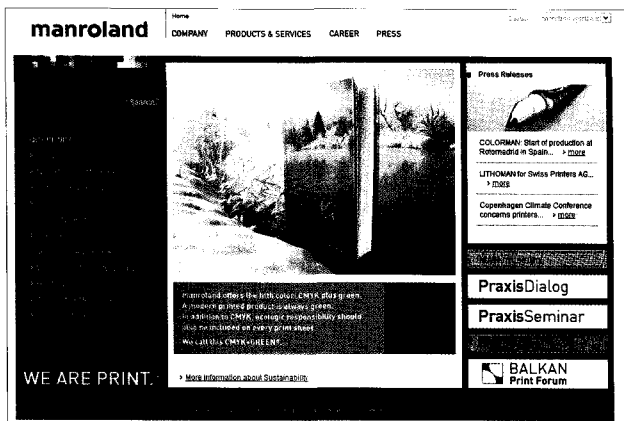
개인과 민간 기업은 이 문건에 따라 과학기술, 재정, 참고서, 음악예술, 아동도서 등의 출판, 인쇄업에 단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또 정책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인쇄와 출판물 간행, 그리고 출판·인쇄물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이 허용돼 국유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고 문건은 말했다.

문건은 또 중국의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해 해외에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합병(M&A), 합작 등의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출판·인쇄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만들고 영업점포도 개설해 현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 4월 민영 출판사를 중국 도서 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육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민영 기업의 출판·도서업 진출을 허용했으나 아직 절차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신문출판업 매출액이 작년 1조 위안(170조원)을 돌파했다. 신문이 1943개, 간행물은 9549종에 달한다. 도서출판 기업이 580개에 관련 기업이 민영, 외자, 합작업체를 합쳐 총 12만여 개에 이른다.

만로랜드, 새로운 마케팅물 선보여



만로랜드 AG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마케팅 툴을 구축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새롭게 단장한 마케팅물을 선보였다. 이번에 개편된 마케팅물은 만로랜드 CI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전세계 지사와 고객에게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디자인, 만로랜드 이벤트 관련 정보, 사진자료, 세미나 자료, 전세계 지사 관련 정보, 다양

한 인쇄기 동영상, 제품정보, 신제품 및 새로운 기술 정보, 강화된 뉴스 센터, 각종 캠페인, 고객 잡지 자료실, 교육센터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모습의 마케팅물은 만로랜드 AG의 또 다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만로랜드 AG는 전세계 지사가 보다 빠르고 밀접하게 연결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만로랜드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존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마케팅물의 개편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선행된 프로젝트이다.

만로랜드코리아(주)의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물 개편으로 본사로부터 기존 보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고객에게도 보다 유의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아그파 그래픽스, 일본 엑스포 어워드 2009 수상

일본 주재 벨기에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는 아그파 게바트 일본이 일본 엑스포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본 엑스포 어워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일본으로 수입 및 수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수여하는 상이다.

일본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의 펠라이스 타이렛 소장은 아그파 게바트 일본이 일본 엑스포 어워드를 수상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 수립한 심사 기준을 넘어선 가장 경쟁력 있는 도전자였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아그파 게바트는 회사를 변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변화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현재는 독특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일본의 주요 제조사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그파 그래픽스의 스테판 반후렌 사장은 “이 영광스러운 상은 지속적인 성장, 기술적인 진보와 원가 절감을 선도하는 작업을 기초로 한 우리의 전략이 적중했음을 증명해주었다”며 “우리의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일본시장에서도 고객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아 프린터 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수상으로 인해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 본부장인 팀 반 덴 보쉬는 “생태학은 현재 일본의 산업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며 아그파 게바트 일본이 무현상 아주라(Azura) 판재 기술로 일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본 상을 수상하

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그파는 특히 Thermofus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zura TS를 안정적인 제판공정, 작업자 친화적인 사용환경 및 단위 면적당 사용 케미컬의 양과 발생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무현상 판재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2004년부터 보급 되기 시작한 Azura TS는 친환경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그파 그래픽스, 간디 이노베이션스 지주사 인수

아그파그래픽스는 중견 중대형 잉크젯 프린터 회사인 간디 이노베이션 지주회사와 간디 이노베이션의 북미 사업장 대부분의 자산 및 해외 주요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 제품군인 중대형 포맷 프린터의 인수로 아그파 그래픽스사는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 사업 군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보완해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되어 2009년까지 간디 이노베이션스는 잉크젯 프린터 엔진의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장시켜오며 2008년에는 미화 1억2700만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기와 회사 내부의 문제등으로 2009년의 판매 실적은 급감한 바 있다. 주요 제품군으로 산업용 평판 잉크젯 프레스인 엠프레스 타이거가 있다. 아그파 그래픽스 사업부의 리차드 버햄 부사장은 간디 이노베이션스 제품과 아그파 그래픽스 제품의 결합으로 아그파 그래픽스의 잉크젯 프린터 사업이 보다 더 완전한 시스템 포트폴리오에 기반을 두게 되고 그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는 잉크젯 프린터 사업의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 아그파 그래픽스의 저가형과 고급형 잉크젯 프린터 시스템에 간디 이노베이션의 중급 시스템을 추가, 현재 아그파 그래픽스가 가진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100% 보완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베이션스의 CEO인 해리 간디 공동 설립자는 "아그파 그래픽스와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간디 이노베이션스의 종업원과 고객에게도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획득한 것이며, 이는 고객 서비스와 연구개발 분야의 결합된 역량과 사업영역으로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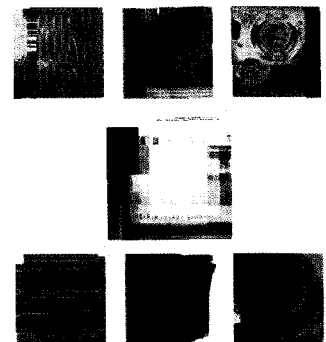
IPEX 2010, 인쇄 자동화 사양 발표

IIR 전시회사와 인쇄 전, 인쇄 및 인쇄 후 공정의 통합을 위한 국제협력(CIP4) 단체는 인쇄 자동화를 위한 진보를 강조하게 될 IpeX 2010에서 계획을 발표했다. 인쇄 자동화 프로그램에는 전시자를 위한 특수 인쇄 자동화관을 포함하여 최신 자동화 기술, 참석자를 위한 인쇄 자동화 로드맵의 배포 그리고 IpeX의 새로운 쇼인 "인쇄 자동화 라이브"를 선보일 것이다. 올해 5월 18~25일 영국 버밍엄, NEC에서 개최되는 IpeX 2010은 세계적 불황이 끝나고 많은 인쇄 회사가 미래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기에 적절하게 열리게 된다. CIP4의 전무이사 James Harvey는 "작년에 우리는 인쇄회사들 간에 회원 자격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인쇄업자들에게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이며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많은 인쇄업자들은 인쇄 자동화가 경영의 요구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제공할 몇 안 되는 투자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쇄 자동화가 IpeX 참석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최신 인쇄 자동화 기술을 접하고 배우며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쇄자동화관에는 15~20개사를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집중화되고 접근이 용이한 구역에서 인쇄 자동화 기술을 전시할 수 있다. Hall 7, 7-E460 부스에 있는 인쇄 자동화관 내의 모든 전시자는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쇄업자들은 개별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여러 공급업자의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통합될 수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다.

고모리, 제61회 전국캘린더전서 수상

고모리코퍼레이션(대표 고모리 요시하루)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본인쇄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제61회 전국캘린더전에서 일본인쇄산업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본인쇄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4



대 전시회의 하나인 캘린더전은 인쇄산업과 캘린더의 진흥을 위해 지난 1950년대부터 개최되어 온 전통이 있는 행사이다. 이번 캘린더전에는 총 725개의 작품이 출품했다.